

# 세계한글작가대회 광주서 열린다

다음달 14~16일 DJ센터서 개막  
광주문학관·전남대 민주마루 일원  
작가·문학단체·번역가 등  
한글 세계화·각국 친목 도모



오는 11월 14~16일 광주문학관 등에서 세계한글작가대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 모습. <국제PEN한국본부 제공>

국제PEN은 지난 1921년 영국 작가 W. 스코트의 제창으로 창립된 문화단체로 모두 145개국에 소속돼 있다. 구체적으로PEN(Poets, Playwrits, Editors, Essayists, Novelists)의 약자)은 문필에 종사하는 각국 문인들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됐다.

국제PEN한국본부(이사장 김용재)는 지난 1954년 설립됐으며 문학의 증진, 표현의 자유, 세계적 작가의 교류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PEN한국본부는 모두 8회에 걸쳐 세계한글작가대회를 개최했다. 1회부터 5회까지는 경주에서, 6회 7회는 서울, 8회는 경주에서 열려 서구 중심의 문제를 한글과 한국 중심의 화두로 초점화해 조정했다.

세계한글작가대회가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역위원회(이사장 박신영)는 제9회 세계한글작가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작가대회는 국제PEN한국본부가 주최하고 광주지역위원회가 행사를 진행하고 추진한다.

이번 작가대회 주제는 '한글, 세계화 화합하다'이며 광주문학관을 비롯해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등에서 열린다.

박신영 광주지역위원회 이사장은 "세계한글작가대회는 한글을 세계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 문인들과 교류와 친목도모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광주의 로컬문화와 청년 작가들이 이뤄온 창작성과 문학성을 점검 및 조명하고 미래문학의 가능성과 지향점을 두루 모색할 수 있는 계기"라고 의미를 밝혔다.

참석 문인으로는 현기영 작가를 비롯해 한강 작가, 김홍신 작가 등과 국내 주요 문학단체, 한글 전문가, 번역가, 학생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외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포일 파르호

도 소설가, 독일 알브레히트 후베 교수, 몽골 불강 타미링 바트체텍 아동작가, 미국 존프랭클 교수 등이며 약 20개국에서 문인들이 참가한다.

개막식은 오는 11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15일은 특별 강연 '한글, 세계화 화합하다'가 진행된다. 김중회 교수의 사회로 김홍신 작가, 한강 작가, 불강타미링 바트체텍(몽골) 작가가 강연을 한다.

특별 세션으로 마련된 '청년작가 프로그램', '문학 청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 포럼은 광주문학관에서 진행된다. 문순태 작가가 기조강연을 하고 이기호 작가(광주대 교수)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 박관서 시인의 사회로 진행되는 '광주 청년작가 포럼'은 '문학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이고 도발적인 주제로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송기영 시인(기억책방), 이민우 문학신문 뉴스페이퍼 대표, 박일우 작가, 이성환 시인, 문은희 시낭송가, 김호균 시인, 임지형 동화작가 등이 발

표를 하고 참가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광주 청년작가 포럼'을 위해 지역위원회는 참가자(청년작가 40명, 시민 100명)를 모집한다. (희망자는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역위원회 다음 카페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전화 문의도 가능.)

16일에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현기영 작가와 함께하는 특별 강연이 펼쳐지며 오후에는 'AI와 문학산업', 그리고 주요 문학단체와 함께 '한국 문학과 청년, 미래 문학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우리 시대의 한글과 한국문학을 조명한다.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한글문학축제'가 열린다. '바위섬'의 김원중 등이 참여해 광주를 화합의 장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한편 김용재 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은 "내년 국제PEN한국본부가 창설 70주년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세계한글대회에 우리 한글과 한글문학의 세계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광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작가들과 문인들, 시민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림·책·음악...광주시민들의 인문 축제

인문지행 '인문주간23' 26일~11월1일 전시·콘서트 등



지난해 열렸던 인문지행의 '인문주간' 장면.

시민들아리 전시, 인문 소풍, 빛고를 락락(樂樂)축제 등..

(사)인문지행이 진행하는 '인문주간23' 행사가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펼쳐진다. '빛고를 락락살롱'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광주시의 민주·인권·평화 가치에 토대를 둔 시민 중심의 인문 축제다.

인문주간 행사는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광주의 모습을 그린 3개의 시민들아리 전시회(10월 26일~11월 1일)가 갤러리카페 '보리와이삭' (동구 동계로 12번길 5)에서 열린다. '나의 도시, 광주'라는 주제로, 아마추어 화가들이 그린 신선한 도시풍경과 그동안 몰랐던 광주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았다. 오는 27일에는 '인문 소풍-아모르파티'가 준비돼 있다. 심옥숙 대표 진행으로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앞 소공원에서 열리며 인생 책 토크와 나누고 싶은 명문장 낭독의 시간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시민들로 구성된 화려한 색소폰 3중주 연주가 펼쳐질 예정이다.

'광주로(路), 빛고를 락락(樂樂) 축제'도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10년후그라운드(남구 양림동)에서 열린다. 주제별로 진행되는 축제는 1부에서는 황인선 재즈 콰텟 연주와 강숙향의 노래 공연, 영화 '양림동 소녀' 감상이 이어진다. 또한 임영희 영화 감독을 만나는 명사 초대석을 비롯해 시민 인문독서 & 그림 동아리 활동 발표회 순으로 진행된다.

2부는 클래식 전문연주자들의 트리오 연주회로 막을 연다. 김기용 첼리스트 외 2인의 연주자가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다. 이어서 시집 '그라시제라'의 조정 시인과의 대화와 '전라도 어'로 하는 시 낭독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인문지행'을 검색하면 된다.

한편 인문지행의 박해용 박사는 "인문주간23"은 다양한 인문적 가치를 다양한 형식으로 즐기는 시민 행사이자 인문축제"라며 "깊어 가는 가을 밤 인문학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저작권 보호 못 받는 'K-안무'

5년간 등록된 저작물 186건...총 저작물 대비 0.07% 불과

엠펙 프로그램 댄스9부터 스트릿우먼파이터까지, 댄스프로그램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방송에 나왔던 안무들은 SNS상에서 댄스챌린지 형식으로 공유되며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이뤄진 안무저작물은 최근 5년간 18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무가 '저작물'로 등록된 건수는 186건으로 총 저작물 수(28만5915건) 대비 0.07%에 불과했다.

실제로 저작권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저작물 대비 안무 저작물은 2018년 0.04%, 2019년 0.08%에 이어 2020년 0.02%로 추락했

다. 2021년에도 0.02%를 유지하다가 작년 기준 0.14%, 올해 0.07%에 그쳤다. 안무 저작물은 연극, 무용, 전통무용 및 2차저작물 일체를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과 제3호에 따르면 안무는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포함된다. 음악, 영상 등 다른 K-콘텐츠들에 비해 안무는 저작권 인정 범위와 개념이 모호,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임종성 의원은 "K-안무"에 대해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무저작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등이 안무가의 권리신장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영화, 장애인 인권을 이야기 하다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일 장애인인권영화제

장애인들의 인권을 주제로 열리는 영화제.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정성주)는 '제5회 장애인인권영화제'를 오는 25일 오후 2시 수원문화체육센터 1층 공연장에서 연다. 장애와 인권을 주제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타리를 상영할 예정이다.

영화제 주제는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이며, 장애인들이 처한 어두운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

을 상정했다.

단편 애니메이션 '양림동 소녀'가 막을 연다. 진도에서 태어나 광주로 공부하러 온 주인공이 5·18을 겪고, 노년이 돼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았다. 올해 제10회 춘천영화제 단편경쟁 부문 심사위원장, 서울국제노인영화제 단편경쟁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오재형, 임영희 작.

민아영 감독의 두 편 다큐멘터리도 볼 수 있다.

먼저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는 지하철 승강장에 장애인, 시민들이 모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제21회 서울장애인권영화제에서도 상영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

또 다큐멘터리 '권리를 잇는 노동자들'도 상영한다는 계획이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권리 중심 노동'에 대해 소개하는데, 노동에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에게 노동 권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 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